

부부의 경제관계와 부인의 자산형성 - 수입과 자산의 괴리 -

이 수 진*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박사과정)
미후네미치코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연구의 의의 및 연구목적

최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직장문화 만들기 등의 사회문화적 움직임과 함께 개별 가정 내의 부부평등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부부관계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결혼생활의 공정성, 평등성인지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로부터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부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부부관계 특히 부인의 경제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부인의 경제관계는 ① 부부의 전체수입에서 부인의 누적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② 부부의 명의재산비율에서 부인의 명의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측정하였다. 부인의 명의재산비율에 주목한 이유는 부인의 재산형성과정에는 부부의 역할과 부부의 경제관계, 생활, 의식등 부부관계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부인의 누적수입이 부인의 명의재산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의 누적수입의 전부가 부인의 명의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인의 누적수입이 명의재산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재산화 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 그 요인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또한 직접 재산화하지 않는 부인의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데이터 및 연구방법

데 이 타 : 본연구에서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21세기 COE젠더연구의 프론티어에서 실시한 「F-GENS 한국패널조사」 2003년도, 2004년도 데이터를 이용한다. 「F-GENS한국패널조사」는 동일대상을 일정한 간격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2년 연속해서 응답을 얻은 대상자의 데이터만을 분석에 이용한다. 본조사는 03년1~2월, 2004년6월에 실시하였고, 유배우남녀 각각441명, 654명 1095명의 응답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의 부인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위해 기혼여성65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조사항목은 남편의 수입, 부인의 수입, 가계관리방법, 부부의 지출행동, 명의재산처분권, 성별역할분업의식 등이다.

연구방법 : ① 여성의 누적수입과 명의재산의 괴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형화를 실시 (명의재산 비율)로부터 누적수입비율을 빼고, 계산된 수치에 의해서 초확대형, 확대형, 등가형,

축소형으로 유형화)

- ② 유형별 특성 - 가계관리방법, 부부의 지출행동, 명의재산처분권, 수입귀속의식, 성별역할분업의식 - 의 차이를 검증한다
- ③ 4개의 유형 중, 축소형의 특성을 명확하게 한다

결과 및 결론

결과1 : 「F-GENS한국패널조사」 누적수입과 명의재산의 괴리의 유형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초확대형126(19.4%), 확대형117(18.0%), 증가형180(27.6%), 축소형228(35.0%)이었다. 괴리 유형별의 부인의 누적수입비율과 부인명의재산비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확대형에 속하는 부인의 누적수입비율은 11.6%, 명의재산비율은 81.3%였다. 이에 비해 축소형에 속하는 부인의 누적수입비율은 45.65%였으나, 명의재산비율은 7.9%로 누적수입이 직접적으로 명의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결과2 : 축소형에 속하는 부인의 특성을 보면, 남편명의재산에 대한 남편의 처분권보다 부인명의재산에 대한 부인의 처분권이 보다 자유도가 높음이 확인되었다.